

전각 갈라져도 시공사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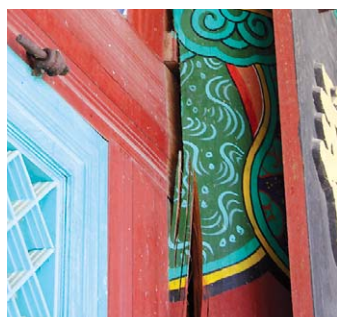
정읍 다천사, 도로공사로 피해 늘어나

도로공사 발파작업으로 정읍의 한 전통사찰이 법당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임시 법당에서 법회를 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읍시 태인면에 위치한 태고종 다천사(주지 등각, 전통사찰 제98호) 대웅보전과 원통전, 요사채 등은 2006년 6월 착공한 원평-태인간 도로공사 2공구 항간산 터널 발파 공사로 균열이 진행 중이다. 대웅보전의 경우 기둥에 발생한 균열의 폭이 3cm 정도까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대들보와 도리 등 각 부재들이 심한 균열과 비틀림으로 인해 이탈된 상태다.

요사채도 벽면 균열이 진행돼 안전상 거주가 불가능해 대중들은 가건물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다천사(茶泉寺)라는 사찰명의 유래가 된 경내 1300년 된 샘터도 공사와 때맞춰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수록 고갈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터널 발파공사 당시 다천사 측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점거능성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국토



터널발파공사로 균열이 발생한 정읍 다천사 대웅보전 기둥.

관리청 익산지청과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전각의 균열원인은 발파작업이 아닌 자연현상”이라며 민원을 묵살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등각 스님은 “국토관리청은 터널 발파공사로 인해 건축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전통사찰보호법에 따른 아무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현재 소송은 공인기관의 피해조사까지 마무리 된 상태로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시행사는 법원의 피해보상 조정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사찰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협의회 창립

송광사 백양사 등 5개 교구본사 광주사암련 등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어청궁 경찰청장 사과 수용을 정점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가라앉은 가운데,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가 창립식을 열고 공직자 종교편향 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상임공동대표 영초, 이하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11월 15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1000명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과 정법수호 결의대회를 병행했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광주전남지역 5개 본사(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로 구성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 치사를 대독한 세영 스님(사회부장)은 “자비는 방편이 아니다. 평화와 이타적 자비를 중시하는 불교지만 인내와 관용만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잘못은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참회해야 한다. 불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당당한 불교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11월 15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식과 정법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치사에 앞서 영초 스님(송광사 주지)은 불행사에서 종교차별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및 종교 자유 보장할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계는 인재발사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정법수호 결의대회에서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정부에는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를 위한 입법조치 △국회에는 종교차별 금지 입법의 즉각 처리 △공직자에게는 성시화운동 참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차별철폐와 종교

교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종교차별 종식과 정법 수호를 위한 활동과 국민주권 및 불자 인권 옹호 활동, 생태계 및 사회 환경 보호 활동, 성보문화재 보호 활동, 시민사회 및 타종교와의 연대 활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사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기정 의원, 오병운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정치인들도 다수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늘부터 참불자가 되세요”

목포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전남 목포교도소는 11월 20일 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53명을 대상으로 재가불자 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전남포교사단 교도소 2팀(팀장 이종관)이 주관해 진행된 행사는 전계이사리 경흥 스님(무안 약사사)과 지황 스님(해남 광보사)을 비롯해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인근 사암연합회 회원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흥 스님은 계를 전하는 말에서 “오계는 불교에 처음 발심한 사람이 라면 누구나 목숨처럼 지켜야 할 계율이고 동시에 인간과 세상을 편하게 하는 근본 윤리”라며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언행으로 참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동참 수계자에게는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관음경> 등 불교 경



11월 20일 목포교도소 대강당에서 봉행된 재가불자 오계 수계법회.

전과 다과가 제공됐다.

정영균 포교사(광주전남포교사단)는 “교도소 수용자들은 사회에 적응 못한 사회적 약자”라며 “불교의 가르침에 동참시켜 불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교도소 불교교정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불자수용자들, 스님, 포교사와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회 불교입문자와 불자수용자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해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산재 전수관 건립

전북도, 봉서사에 추진

전라북도에서 영산작법 교육전수관이 건립돼 전북지역 고유의 영산재 보급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원주)는 11월 18일 “전북 지방무형문화재 제18호 ‘봉서사 영산작법’ 교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영산작법 교육전수관 건립 예정지는 현재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있는 전주시 중노송동 46번지 일대다. 504㎡부지에 지하 1층, 지상4층 건평 1155㎡ 규모로 사업비 25억원 을 투입해 2010년 완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상훈 화예연구관은 “우리 고장의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신 찾는 것이 극락가는 길”

진도 서학사 한국전 희생영령 천도제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천도제가 영암 월출산 산자락에서 열렸다.

진도 서학사(주지 중화)는 11월 16일 월출산에서 한국전쟁 때 영암군 11개 면 등에서 희생된 9000위에 대한 합동 천도위령제를 봉행했다.

보성 봉감사 회주 도륜 스님을 비롯해 영암군 11개면 주민들이 참석해 봉행된 행사는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호산) 회원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도륜 스님은 법문에서 “자기 마음의 진면목을 찾지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같은 입장이 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야말로 극



진도 서학사는 11월 16일 월출산에서 한국전 희생자 천도제를 봉행했다.

락세계에 가는 길이며 최고의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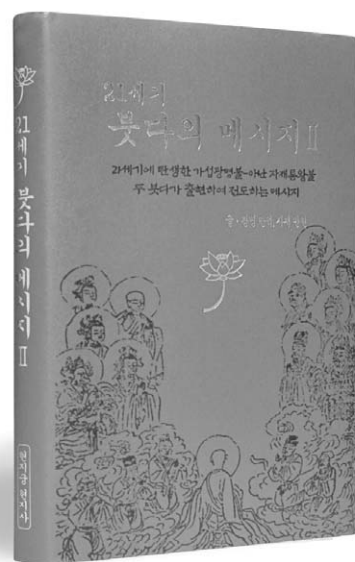
한편 중화 스님은 4년 전부터 매년 진도에서 희생당한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1세기 불교계에 새로운 경전 탄생!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이 땅에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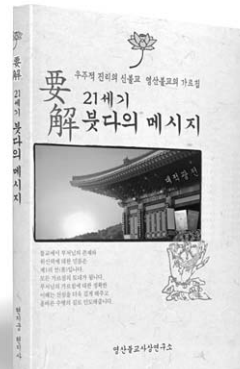


현지궁 현지사 / 378쪽 / 25,000원 / 초판

발간 하자마자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2탄입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랐습니다. 종교상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붓다가 밝히는 사후세계의 진실과 생사관이 여기 있습니다. 깊은 삼매속에서 부처님을 뵈고 가르침 받아 썼습니다.

“새벽에 올리는 남섬부주 제자의 공양을 드시고 천녀들이 가져온 차 공양을 ... 불세존께서는 모든 불보살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시간은 거의 2시간 ...

- ▶부처님 이후 2600여년 만에 열리는 영산불교 붓다회상의 최유한 설법정면,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현지궁의 모습과 부처님의 일상 일부를 공개
- ▶불세존 등 여러 부처님들께서 사바세계에 나타내시는 변화신의 모습을 공개
- ▶법신불 · 보신불 · 화신불의 생성원리와 무량광의 실체 등 부처님 세계를 깊이 묘사
- ▶인간의 실체인 영혼체와 영혼체가 가는 사후세계인 중음세계 · 육도윤회세계 · 해탈세계의 실존과 실상을 밝히면서 완벽한 생사관을 제시
- ▶보살 · 붓다가 되는 혁신적인 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자 · 타력불교’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패러다임 변혁을 주도.
-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체분리와 업정소멸과정의 밀정일부를 공개
-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관계에 대한 불교계의 오랜 논쟁을 명쾌하게 해결
- ▶수행을 방해하는 용신 · 이매량 · 정매마 · 천마 등 마장의 실체를 낱알이 규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 · II - 요해 [영산불교사양연구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와 자재만현 큰스님의 70회회 붓다회상의 설법내용중 핵심만을 골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가르침의 종합판.